제 7 호 1981. 10. 31

물리치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Korean Physical Therapist Association

자질과 긍지

김 용 주

얼마전 TV에서 미국의 최신 전투기 생산 과정을 방영해 주는 것을 보았다. 설계자가 설계한 후 하나하나의 부품을 각부분별로 정제한 다음 조립해서 완성된 전투기를 생산해 나가고 있었다.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전투기이므로 몇만개의 부속품이 심지어는 나사못 하나까지도 정제된후 조립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을경우 공중분해하거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

몇백개의 계열하청업자들이 하나하나의 부품이 좋은 품질이 되게끔 한사람한사람 숙련공의 손을 거쳐서 제작해 나가고 있었다.

이과정에서 전체적 통합을 하는 사람은 물론 설계자이지만 우수한 설계자만 있다고 해서 전투기가 생산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작은 못하나를 만드는 사람을 포함해서 각부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서 그한부분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질수없는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낼때 가장 우수한 전투기가 생산된다고 생각된다.

현대의학은 의사를 중심으로해서 많은 관계분야의 협력자 (co -worker) 들이 하나로 통합해서 좋은 양질의 의료를 실시할수 있다고 한다.

특히 재활의학분야는 "팀웍 (team work)" 이 강조되는 의료분야라고 한다.

재활전문의사를 중심으로 각분야의 전문인이 하나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자질높은 상태에서 통합될때 보다 훌륭한 재활의학이 실시된다고 하겠다.

마치 전투에서 중대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소총수의 역할이 있듯이 통합을 요하는 분야일수록 또한 개개인의 자질이 높이 요구되는 바이다.

물리치료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년간의 전문대학 과정을 거친후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되어져있다. 앞으로 국제적인 추세와 고도의 전문성이란 점에서 4년제의 정규대학 과정으로의 개편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 그렇다고해서 지금 당장 4년재로 개편 될수는 없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현재 2년제라고 해서 나는 2년제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체념에 빠진다면 이또한 큰문제이다. 비록 학제는 형편상 2년제이지만 나는 다른나라에서의 4년제 과정을 농축해서 공부한다는 긍지가 있어야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공부하는 학생 또 자격을 가진 물리치료사를 막론하고 남의 두배 이상의 공부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한다. 내 출생의 상황이 겨우 요것 뿐이니까 요것 밖에 할수 없다고 할때에는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제몫도 찾지 못하는 후퇴적인 인간이 되고만다.

옛속담에 이런말이 있다. 한소녀가 봄날 마당에 떨어진 꽃잎을 쓸고 있는데 한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지구의 한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쓰는사람의 주관에 따라 마당 한모퉁이를 쓸수도 있고 또 지구의 한모퉁이를 쓸수도 있겠지만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다. 실력있는 자에게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고 한다. 흔히 2년제를 나왔기 때문에 수학 년한이 짧아서 남이 알아주지를 않아서 일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2년제를 나온 것은 엄연한 현실이면서 숙명적인 사항이고 보면 이것은 스스로가 타개해야지 누구도 타개해 주지 않는다.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때 비록 2년제를 나왔을지라도 그실력과 자질이 대단히 높다고 남이 평가할때 우리의 앞길은 더없이 밝아질 것이다. 이럴경우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것이고 또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의논의 상대역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지시를 주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의논코저 했을때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수 있는 상대라고 평가되면 즉각적으로 그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다. 즉 모든것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부정적 사항에 만있는 사람이 4년제로 개편되었다고 해도 외형만 커진것이지 내용에는 큰변화가 없을 것이다. 외국의 물리치료사들은 좋은 조건속에서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조건도 나쁘고 대우도 충분치 못하다. 내가 겪고 있는 현사항을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않을려면 아니 현시점에서라도 외부의 평가를 높이 끌어올리려면 먼저 스스로가 공부하며 노력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협회에는 현재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나 기존 물리치료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많은계획을 하고 있지만 사정상 계획대로 진행되지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협회원 스스로의 학구적인 자세이다. 앞으로 4년제가 될경우 후배들에게 지지않기 위해서도 지금부터 공부해야 한다. 물리치료의 방향도 근래 그 개념 자체에 많은 변혁이 일고 있다. 또 새로운 치료법들과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적응하려면 기초적인 실력을 튼튼히 해야 이를 기반으로 좋은 연구방법이 생긴다. 우리 스스로가 자질을 높이고 물리치료분야에서는 마당의 한모퉁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한모퉁이를 쓴다는 자질높은 긍지를 가지고 맡은바 일에 힘쓰도록 하자. 우리 협회원 하나하나가 자질높은 정예화가 되는것 만이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가는 최선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각자 명심해야 한다. 전문분야의 경쟁에서는 남이 쓰러졌다고 일으켜주려는 따뜻한 인정은 극히 드물고 오히

→ 2면에 계속

腦卒中에 關한 考察

****

충남대학부속병원 蔡 洙 晟

腦血管事故는 임상적 용어이며 學術的으로는 stroke, Apoplexy (졸도) 等이 쓰이며 中樞神經係의 질환이다. 韓國에서는 사망율 1위이며 欧美等에서는 心臟疾患, 癌다음으로 많으며 腦溢血, 中風, 腦卒中, 반신불수등으로 부른다.

1. 分類(classification)

A. 腦梗塞(Cerebral infarction)

① 腦血栓(Thrombosis)

② 腦栓塞(Embolism)

B. 腦出血(Intracranical Hemorrhage)

① 腦實質內出血(Intracerebra Hemorrhage)

② 蜘蛛膜下出血(Subarachnoidal Hemorrhage)

2. 原因과 症狀(Cause and Symptoms)

① 腦血栓……C. V. A의 80%를 차지하며 上肢에서 下肢로 痲痺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혈액속에 콜레스테롤 또는 중성지방이 늘어나 뇌혈관벽에 침전되어 일어난다. 原因은 뇌동맥경화증, 지방성변화, 혈관주위염증성질환, 다혈구증, 뇌종양, 홀몬이상, 혈액병 等이다.

症狀은 精神的인 충격, 근심등으로 오며 혈관내가 좁아지고 혈액이 응고되어 30초이상 차단될 때 뇌대사에 장애가 온후 5분이상 지나면 O_2결핍으로 뇌신경기능이 중지하여 死亡하게 된다.

② 腦栓塞症

핏덩어리, 腫瘍, 脂肪, 空氣 및 기타 이물질이 腦血類의 도관을 막으면 갑자기 쓰러져 마비되나 점차 회복되며 영구손상은 거의없고 편마비, 언어장애 경련발작등을 일으킨다.

原因은 심장판막증, 심내막염, 심장간상동맥 등의 좌심방에 있는 血栓이 腦도관을 막고 腦腫瘍, 급성·만성 腦막염, 추골동맥압박, 국소성뇌염, 혈관외상등이 腦도관을 막아 생긴다.

③ 腦實質內出血……高血壓으로 인해 뇌혈관벽은 탄력성이 없어져 血管破裂로 出血된다. 出血부위는 기저핵주위출혈, 시상부 렌즈핵주위, 내낭 및 측내실등이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인 충격과 흥분으로 인해 혈관이 긴장과 이완, 팽창되고 80%정도가 사망하며 출혈후 1시간정도 혼수상태면 24시간내에 사망하게 된다.

原因은 動靜脈崎形, 동맥류, 뇌종양, 혈관종, 급성감염, 질환, 白血病, 혈액응고기전障碍, 뇌혈관벽장애, 세균성외상등이 오면 출혈된 혈종을 제거 수술한다.

④ 蜘蛛膜下出血

腦기저부동맥류파열(비정상적인 국소성혈관확장의 90%이상이 先天性)이다.

동정맥 파열로 뇌지주막 사이에 혈액이 고이면 머리 뒤쪽은 둔기에 맞은 것 같고 목덜미가 뻣뻣해지며 두통, 의식장애, 구토, 경련등의 장애가 있으며 50%정도 사망한다.

原因은 동정맥선천성기형, 동맥경화증 및 매독등의 염증, 세균감염성 외상등으로 발생한다.

3. 診 斷

신속정확하게 진단하여야 하며(출혈이계속되면 조직을 파괴하거나 압박감), 혈압, 심박동, 체온절, 체위등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의식태, 전간발작, 두개강내의 동정맥의 폐쇄 또는 협상태를 관찰한다. 바빈스키반응과 심부건반사를 사한다. C-T Scan을 하면 뇌조직주위의 출혈량, 浮腫등에 대한 손상정도를 알 수 있다. 검사실 소견으로는 대부분 알부민이 발견되고 WBC가 1~2만개 / mm^3이상이며 뇌파검사상 발병부위에 이상이 보인다.

Bobath는 弛緩期, 경련기, 回復期로 區分하였고 Rood는 Brush로 이마, 귀뒷쪽, 背伸展筋 (Back Extensors) 등을 자극시키라고 했으며 Rusk는 80%의 환자가 보행이 가능하게 되며 대소변을 가리고 self-care를 할 수가 있다고 했으며 30%는 前職場에 종사할 수가 있다고 하였다.

4. 治 療

腦障碍에 대한 응급처치는 충격을 주지말고 진정제를 복용하며 가래, 구토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막기위해 구강내분비물을 제거시키고 심한 경우는 기관절제술을 행한다. 혈압강하제를 투여하고 영양섭취에 신경을 쓰며 관장을 시켜 배뇨조절을 시키고 肺炎을 조심하며 욕창방지를 위해 體位를 바꾼다. 體位는 똑바로 눕게 할 때는 마비된 쪽에 벼게를 팔꿈과 손에 받쳐 주어 손목이 背則屈曲(Dorsiflexion)되도록 하고 무릎과 엉덩이 밑에 대주어 무릎이 약간 굽게 해주고 엎드려 있을 때는 골반(pelvic) 밑과 손안에 벼게를 대주고 발목은 T-strap 型으로 대준다.

환자의 마비정도와 關節運動제한정도, 失語症, 失書症, 失認症, 失行症(Appraxia), 삶에 대한 意慾喪失(Volition lose) 等에 대한 총괄적인 장애정도 평가와 기형방지와 교정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한후에 치료계획을 세워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자신감 등이 생기도록 반복 훈련시킨다.

근기능의 회복과 숙련된 동작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기능의 회복을 위하고 보다 많은 장애를 방지하고 장애로부터의 독립은 숙련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및 언어치료사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편집자註 : 충청지부집담회에서 발췌)

✣ 투 고 환 영 ✣

참여합시다!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논단(1면), 학술 및 집담·좌담회 초록(2면)
지부·병원·회원 탐방·회원작품(3면)
협회소식·건의·질의·응답·광고 등(4면)
원고마감 : 매월 15일

←1면과 연결

려 남을 쓰러 넘어 뜨리고 라도 자신만이 앞으로 나갈려고 하는 냉혹성만이 충만하다고 하겠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만이 해결해야 한다는 자각하에 우리 협회원은 환경과 남을 탓하기전에 자신의 자질을 높이도록 힘쓰자 이럴때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긍지가 생길 것이다.

(신구전문대물리치료과장, 본협회 부회장)

회장단 동정 및 협회현황

1981.10. 5 노르웨이 물리치료사 Miss Andersen(전W. C. P. T부회장)외 2인 초청만찬회.
장소 : 스칸디나비아 회관
일시 : 1981.10.5 7:00(PM)~9:30(PM)
참석 : 정진우 회장, 김용주 부회장, 석일헌 대의원회의장, 최치옥 감사, 배승학 총무이사, 이복희(한양대학병원)

1981.10. 8 임시이사회 개최
내용 : 1.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준비
2. 82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작성
3. 면허시험 실기고사 실시방안 협의
4. 협회기 제작 결의
장소 : 서울대학병원 13층
일시 : 1981.10.8 12:30(PM)~3:30(PM)
참석 : 정진우, 석일헌, 강정구, 오경환, 박찬의, 배승학
불참석 : 황환익, 김용주, 함용운, 양성주

1981.10.12 각 지부 및 분회장에게 공문발송
내용 : 상훈 대상자 추천의뢰 및 제1차 임시이사회 결과 통보

1981.10.16 1) 학회지 편집위원 소집
장소 : 협회사무국
일시 : 1981.10.16 6:30(PM)~8:00(PM)
참석 : 김용주, 정진우, 함용운, 오경환, 배승학

2) 경북지부회 총무 박래준씨 공문접수
내용 : 1. 협회비 송금
2. 회원현황 보고
3. 월례모임 보고

3) 각 지부장에게 공문발송
내용 : 지부감사 실시
충청지부 - 10.22~30 일중
감사관 : 김용주 부회장
경남지부 - 10.22~30 일중
감사관 : 양성주 부회장
경북지부 - 10.24 일
감사관 : 정진우 회장
전남지부 - 10.24 일
감사관 : 정진우 회장, 배승학 사무국장
전북지부 - 10.25 일
감사관 : 정진우 회장, 배승학 사무국장

1981.10.19 1) 각지부 및 분회장에게 공문 발송
내용 : 제17차 정기총회(제2차 대의원총회) 개최에 따른 대의원 변동사항을 중앙회에 보고 요망.

2) 회원에게 공문 발송
내용 : 미납회비 납부 요망(1981.10.31 일까지)

1981.10.21 학술대회 준비위원에게 공문 발송
내용 : 학회지 편집회의 개최에 참석 요망.

1981.10.24 충청지부장 채수성씨 공문 접수
내용 : 충청지부 회원 현황보고.

1981.10.26 1) 충청지부장 채수성씨 공문 접수
내용 : 대의원 변동사항 및 현재 대의원 현황보고.

2) 이사들에게 공문발송
내용 : 제5차 정기이사회 및 상훈위원회 소집.
일시 : 1981.10.31(토) 2:00(PM)
장소 : 협회사무국(신한병원내)

3) 학술대회 준비위원 소집
일시 : 1981.10.26 6:30(PM)~8:30(PM)
장소 : 협회사무국(신한병원내)
안건 :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제반사항
참석 : 정진우 회장, 백진 직전회장, 배승학 총무이사, 오경환 학술이사, 박찬의 학술대회장, 이재형(대전을지병원)

<운영비 찬조>

노르웨이 물리치료사 3인 초청만찬시 찬조금
정진우 ₩10,000 최치옥 ₩10,000
석일헌 ₩10,000 이복희 ₩10,000
김용주 ₩10,000 배승학 ₩10,000

<기금 찬조>

박홍기(No. 216) ₩20,000
함용운(No. 285) ₩20,000

<81년도 회비납부자> 81. 10. 25 현재

이성경(No. 437) 김수인(No. 376) 문수경(No. 474)
홍성연(No. 807) 홍두한(No. 427) 박홍기(No. 216)
김화경(No. 422) 김인태(No. 608) 김범석(No. 365)

<81년도 신입회원 등록>

조만복(No.) 김경기(No. 936) 김봉길(No. 838)

<미납회비 납부자>

이성경(No. 437. 79, 80년) 문수경(No. 474. 77,80년)
김인태(No. 608. 80년) 김수경(No. 365. 80년)

<카톨릭 신우회 소식>

그동안 많은 신자 및 예비신자께서 회원입회 등록을 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아직도 공사 다망하신 관계로 입회를 꺼리는 회원들에게는 조속한 시일내에 서신을 주시어 모처럼 결속되는 본회의 발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마감은 11월 30일까지이며, 협회지 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ZASP에 관한 소식>

협회지 5호(1981.8.3 발행)에 실린 NZASP 에 관하여 많은 회원들의 문의가 협회에 접수되어 금명간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 학술대회 개최때 한국 Sports Medicine 학회가 결성되어 석일헌(초대 협회장 및 학회장) 선생님의 주관으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 지 사 항

1. 학술대회, 회원총회 및 대의원 정기총회 안내

1981년 10월 8일, 10월 16일 및 10월 26일에 열린 임시이사회 및 학술대회준비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사항을 결의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다 음－

예산및진행 : 숙박시설 제공은 인천분회에서 부담하고 대회유치에 따른 제반 경비는 중앙회에서 부담하며 행사 당일의 모든 안내 및 준비는 인천분회에서 책임을 맡는다.

참 가 자 격 : 회원은 학술대회 및 회원총회와 제2일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격은 81.11.14 까지의 협회비를 완납한 회원만 참가를 허락하며, 11월 5일까지 분회 및 지부장에게 참가등록을 하도록 한다.

2. 동부분회장 교체

그동안 동부분회장으로 수고해 주시던 장건오씨가 개인사업 관계로 분회장을 사임하시고, 분회장 대리로 수고해 주시던 위생병원의 김인태 총무가 동부분회장에 위임되었읍니다. 앞으로 김인태 분회장의 노력으로 동부분회의 발전과 결속에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3. 북부분회장 도미

그동안 북부분회장으로 수고해 주신 오승길분회장께서 1981.10.27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었읍니다. 회원들의 많은 축복과 성원 있으시길 바랍니다.

「醫療技士法中改正法律案의 重要內容」

〈第16條〉「第10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1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를 「5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로.

〈第12條①의 2〉「禁錮以上」을 「醫療關係法律을 위반하여 禁錮以上」으로.

〈第13條〉「……申告를 3回以上 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申告를 3回以上 하지 아니하거나 第10條의 2의 規定에 의한 補修敎育을 履修하지 아니한 때에는…」으로

〈第15條〉「… 50萬원…」을 「…300萬원…」으로.

〈新設〉第10條의 2(補修敎育) 醫療技士는 保健社會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補修敎育을 받아야한다.

PRESTON ENRAF NONIUS DELFT

물리치료기구제작, 수입 판매.

Medelec, A Vickers Medical Co.
EMG 수입판매.

새한販売商社

金 東 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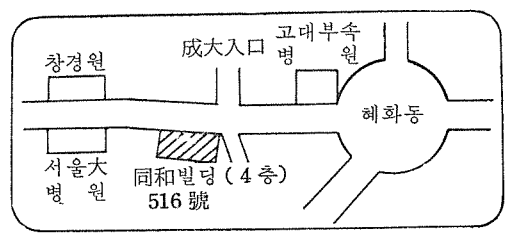
110 서울特別市 鍾路區 東崇洞 1의 31
MEDICAL SUPPLY CENTER BLD.
電 話 서 울(02) 762-5659

■ 안 내

사무실 이전

圖書出版 大學書林

서울•鍾路區明倫洞4街188-7
(同和빌딩 516號)
Tel. 762-4102
763-1220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8~36 (신한병원내)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TEL. 724-0926, 4707